

대구시의회 의장단 선거 대구시 입김 작용 파장...

〈후반기〉

이만규 현 의장 전·후반기 의장 독식... 개혁정치 말살

대구시의회 후반기 신임의장직을 놓고 물밑 작업이 한창이다.

25~27일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 선출을 앞두고 긴장감이 나온다.

후반기 의장에 도전장 낸 시의원은 △이만규(중구2·재선) 현 의장 △김대현(서구1) 시의원 △이재화(서구2) 시의원 △하병문(북구4) 부의장이다.

도전장을 낸 3명의 시의원 단일화와 이만규 의장 재임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2년 뒤 있을 지방선거 기초단체장에 뜻을 두고 있는 후보진들은 17명의 과반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하지만 의장 선거에 집행부가 개입했다는 말이 돌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로 견제 비판하고 통제해야 하는데, 집행부가 개입된다면 그기능이 상실된다는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이만규 의장은 "공식적으로 재출마 의사를 밝힌 적이 없지만, 과반의 시의원들이 추대하고 집행부의 전폭적 지지 때문이라도 의장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입장이다.

1952년 제1대 시의원 선거이후 2023년 제9대까지 그런 관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시의원은 "관례가 없으면 법을 만들어



경산자인단오제, 내년에 또 만나요~ 지난 8~10일까지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에서 열린 '2024 경산자인단오제'가 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행사기간 아낙네들이 청포로 머리를 감고있다. (사진=경산시 제공)

서라도 하면 된다"는 발언을 해 시의회에 대한 부정적 시선과 목소리가 더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대구시의회 확대 의장단 회의 때 정장수 경제부시장이 "이만규 의장이 재임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흥준표 대구시장이 "해이지"라고 동조한 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시의회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가중됐다.

이는 만찬장에 참석한 H시의원과 많은 상임위원들이 들었다고 전하면서 뜬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전해져 많은 파장이 일고 있다.

2020년 8대 더불어민주당 순천지역위원회는 중앙당 대표의회 의장단 선출 지침에 맞춰 연임이나 재임을 할 수 없고, 재선 이상의 4선 의원이 우선 출마하는 방안으로 선출 방식을 결정한다.

상임위원장의 경우 초선 의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후반기 의장단의 선출 원칙과 방법을 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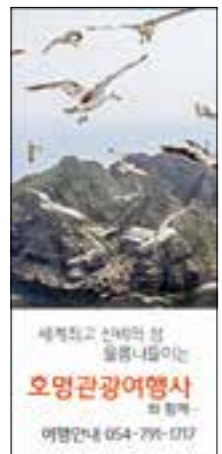
B시의원은 "다른지역은 4년전에도 공정하고 투명한 선출 절차로 의회의 본질적 기능을 강화하고 있는데, 대구시의회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역 주민들은 "의회까지 흥 시장의 입

김이 전해진다"며 "대구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은 없고 오직 의원들 바그릇 싸움뿐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시의회 의장단 선거에 따라 의원 자질을 평가하겠다"고 덧붙였다.

어쨌든 의장단 선거를 놓고 진검승부를 벌이고 있는 후보들에게 한표를 던지는 시의원들의 표심이 누구에게 쏠릴지 결과가 기대된다. (조미경 기자)



세계적이고 신穎한 일... 오영관광여행사

단체장 일정



오도창 영양군수는 11일 오전 영양군 청아실에서 열리는 '이웃돕기 현물지정 기탁식'에 참석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11일 오전 현동면 개일리에서 열리는 '개일리 진교경로당 중공식'에 참석한다.

경북지역 사업장폐기물 쏠림현상 가속화...

황명강 경북도의원 사업장폐기물 지역 쏠림현상 경북미래 자연환경, 생태계가 위협 도민건강 우려

황명강(사진) 경북도의원이 경북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경북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활성화 대책, 다문화 이주여성 일자리 확보 및 다문화 전문가 양성 방안, 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대책도 물었다.

황 도의원은 10일 열린 제347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도의원은 환경부에서 발표한 '2022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사례로 들었다.

경북이 사업장폐기물 발생량은 5위(9.6%)지만 처리량은 압도적 1위(25.8%)다.

현재 경북 민간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은 경

주, 포항, 고령 등 총 20곳이다. 문제는 4개 시군 10곳에서 신·증설을 추진하고 있어 사업장폐기물 쏠림현상이 더욱 가속화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황 도의원은 "사업장폐기물 지역 쏠림 현상으로 경북의 미래가치인 자연환경, 생태계가 위협, 도민의 건강과 안전이 걱정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황 도의원은 사업장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사업장폐기물 관리 및 대응방안 마련 △사업장폐기물 발생지 처리원칙을 위한 중앙정부 및 중앙정치권 건의 △환경영향평가 조제 제△사업장폐기물 관련 사업 및 예산 확보 등을 제안했다.

경북교육청의 청렴도 문제도 질었다. 전국 공공기관 대상의 국민권익위원회 종합 청렴도평가에서 경북교육청이 전년도 1단계 하락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하락한 최종 4등급을 받은 사실을 집중 따졌다.

올해 구미 초·중학교 모듈교실 불량차제 수급 논란과 지난해 해양 국립감사에서 지적된 그린 스마트스물사업의 부적정 사용도 문제 삼았다.

황 도의원은 경북교육청이 교육부가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기관으로 연속 선정되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청렴도평가의 부진한 성적으로 교육환경의 신뢰회복에 우려를 표했다. 김성용 기자

경주·포항·울산 맞손... 한동해안 벨트 형성

3개 도시 상설 협력기구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 운영기로 확정

경주·포항·울산이 손잡고 한동해안 시대 삼각벨트를 형성한다.

3개 지자체는 상설 협력기구를 구성, 도시 간 협력 강화에 나선다.

경주시는 포항시·울산시와 함께 10일 오후 울산 동구 HD현대건설기계 글로벌오피레이션센터에서 '동남권 해오름동맹 상생협의회 상반기 정기 회'를 열었다.

이날 주낙영 경주시장, 이강덕 포항시장,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3개 자치단체 실·국장 등 28명이 참석했다.

회의는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 운영 방안과 2024년 해오름동맹 핵심사업에 대한 발표 순으로 진

행했다. 우선 3개 도시는 상설 협력기구로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을 운영기로 확정했다.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은 3개 도시가 인력을 파견해 1팀 4명으로 구성하며, 다음달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다.

추진단을 바탕으로 3개 도시는 광역사무국 출범 준비에 집중하고, 핵심사업과 협력사업, 대시민 홍보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날 해오름동맹 도시발전 시행계획을 토대로 3대 분야, 10개 핵심사업도 발표했다.

3대 분야 주요 내용은 △단일경제권으로 성장하는 '친환경 첨단산업지대(벨트)' 구축 △강·산·바다를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관광관' 조성 △동일 생활권으로 연결되는 '조광역 교통망' 형성 등이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이번 해오름동

맹 상생협의회를 통해 울산, 경주, 포항 3개 도시가 다양한 부문에서 상생 협력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해오름동맹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초광역 상생협력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3개 도시 간 유기적 발전을 위해 10대 핵심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해오름동맹 광역사무국 추진단 운영을 통해 공동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3개 도시 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오름동맹은 2016년 6월 울산·포항 고속도로 개통을 계기로 생활권역으로 묶인 경주·포항·울산 3개 도시가 구성한 행정협의체다. (윤찬 기자) (정명 기자)

2025 APEC 정상회의의 경주 유치

울 여름, 특별한 즐거움 일상탈출 울릉도 여행 Have a Special Time in Ulleung Island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 6·25 참전용사 식사 대접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지난 8일 준비한 삼계탕을 6·25 참전용사에게 대접했다. 한국자유총연맹 달성군지회는 나라 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및 6·25 참전용사안

부문기, 6·25 전쟁 당시 음식 재현 및 사진전을 통해 안보의식 고취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다.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자유총연맹회원 30여 명이 6·25

참전용사를 위로하고자 달성군 보훈회관에서 직접 준비한 삼계탕을 대접했다. 김주연 회장은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참전용사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이들의 애국심을 잊지 않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대구시, 도입 2년 보행자우선도로 사업효과 '톡톡'

'22년부터 총 10개소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 31.0% 감소



대구시가 보행자의 통행우선권 보장을 위해 2022년 7월 도입한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통행이 차량 통행에 우선하도록 지정된 도로로서 2022년 7월 12일 도입됐다.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된 곳에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보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보행자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하며, 위반 시 최대 5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대구시는 2022년 7월 관련법 시행 이후부터 총 10개소('22년 5개소, '23년 2개소, '24년 3개소)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했으며, 지난해

까지 7개소에 총 23.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보행친화적 도로포장, 과속 방지시설 및 표지판 등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물을 조성했다.

특히 올해 지정된 동촌유원지 일원의 보행자우선도로 3개소는 일반음식점이 밀집해 있어 평소 차량 통행이 잦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필요성이 제기된 곳으로, 지난 3월 지정 고시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을 거쳤으며 하반기 국비(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시가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해 사업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시행 전·후 교통사고 발생률이 평균 3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가 도입된 지 채 2년이 되지 않았음에도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에 대구시는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지켜야 할 의무와 보행자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보행자우선도로의 실효성을 더욱 넓혀갈 계획이다.

정장수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은 "올해 지정된 동촌유원지 일원에 보행자우선도로 조성이 완료되면 보행자들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행자우선도로에서는 특히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조여은 기자

군위선비춤, 전국실버국악경연대회 대상 수상

군위 생활문화센터 활성화 기여

군위군 선비춤이 제5회 '전국실버국악경연대회'에서 경상북도지사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달 경주 서라벌문화회관에서 열린 대회에는 전국에서 165개 팀이 참가해 다양한 경연을 펼쳤다.

대회에서 군위선비춤의 김이수 회장이 '선비춤'으로 개인무용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군위생활문화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활성화된 동호회 활동 덕분에 가능했다.

(재)군위문화관광재단에서 2021년부터 운영 중인 군위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을 위해 늦은 시간까지 활동 공간을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을 통해 동호회 활동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 덕분에 군위선비춤을 비롯한 여러 동호회가 성과를 내며 군위의 생활문화를 풍부

하게 하고 있다. 군위선비춤은 2016년 5월 전통예술공연을 통해 지역사회에 재능을 기부하고, 선비춤 및 국악 활동으로 농촌마을의 문화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강승범 단장을 중심으로 설립되었으며, 한발국악전국대회 대통령상 수상자인 정경희 선생의 지도로 더욱 빛나는 단체로 성장했다.

군위선비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매주 연습에 매진했으며, 그 결과 마을 경로잔치와 다양한 축제 및 대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이수 회장은 "앞으로도 군위군 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군위군이 대구의 문화 예술적 위상을 높이는 다양한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라며, "이 모든 영광은 군위생활문화센터의 적극적인 지원과 회원님들의 열정 덕분이다"라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박재성 기자

수성구·영덕군, 상생발전 친선 축구교류전 개최



수성구는 지난 8일 영덕군을 방문해 영덕군 공무원 축구동호회와 축구 교류전을 갖고 우의를 나눴다.

창포해맞이축구장에서 열린 이번 스포츠 교류전은 두 도시 간 유대를 강화하고 협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60여 명의 선수가 참가했으며 김대권 수성구청장과 김무열 행정국장, 김광열 영덕군수와 배재현 영덕군의회 의원 등 내빈이 참석해 교류

전 개최를 축하하고 함께 응원했다. 두 지자체는 축구 교류전을 통해 도시 간 상생 협력력을 다졌으며, 수성구는 올해 가을경 영덕군을 수성구로 초대해 친선 축구 교류전을 다시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동호회 축구 교류전을 계기로 도시 간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대구·경북의 동반 성장과 공동 번영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EVERYDAY 달성! 달성군 대구꽃박람회 참가

달성군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대구 EXCO에서 열린 제15회 대구꽃박람회에 'EVERYDAY 달성'이란 주제로 참가했다고 밝혔다.

달성군 조성관은 정면에 달성군의 사계절을 떠올릴 수 있는 포토존과 볼거리를 준비했고, 후면에는 청년농업인 5명의 브랜드 디자인을 전시해 계절에 따라 변화하는 달성군의 아름다움과

청년들이 이끌어 가는 농업의 미래를 제시하여 달성군의 밝은 미래를 표현했다.

또 군은 청년농업인들이 3개의 부스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전시, 체험, 판매해 달성군 농업의 미래와 희망을 홍보했다. 조성관 인증사진을 SNS에 게시하면 반려 식물을 나눠 주는 행사를 함께 진행해 박람회를 찾은 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제15회 대구꽃박람회 꽃오피스 부문에 다사읍에서 화훼를 재배하는 이상준 농가가 장미(하젤)를 출품하여 우수상을 수상하며, 달성군의 뛰어난 재배기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제15회 대구꽃박람회를 통해 달성군의 아름다움과 달성군 농업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수한 청년들을 도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어 매우 기쁘다"고 전했다. 조여은 기자

달성군새마을회 이웃과 함께하는 농촌 일손 돕기

정연욱 회장 양파구매... 농가수익에 보탬

달성군새마을회는 10일 달성군 농업에 소 재한 양파 농가를 돕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위해 정연욱 회장을 포함한 달성군 새마을지도자 70여 명이 1800여 평 규모의 양파밭에서 양파수확 작업을 도왔다. 또한 정연욱 회장은 현장에서 수확한 양파



1000kg을 구입해 양파 농가의 소득 증진에 기여했다.

정연욱 새마을회장은 "무더운 날씨에 농번기를 맞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했다"며 "향후에도 회원들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달성군새마을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달성군새마을회는 농가 일손 돕기를 비롯한 사랑의 △김장나누기 △사랑의 집고쳐주기 △탄소중립·생명살림운동 등 보다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봉사하고 있으며,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 새마을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2024 대구북구청청소년지도협의회 행복북구 청소년하계수련대회

대구북구청청소년지도협의회(이하 협의회)가 지역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위원들을 대상으로 지난 8일 토요일 가산수피아에서 '2024년 북구청청소년지도협의회 행복북구 청소년하계수련대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북구 청소년들의 건강하고 올바른 성장을 지원하고자 지역의 청소년들과 북구청청소년지도협의회 위원들이 함께했다.

도심을 벗어나 자연 숲속에서 꽃공예, 알파카랜드, 숲속 레일 썰매 등 다양하고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이번 수련대회에는 초등 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22명을



각 동 청소년지도협의회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했다.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지도위원과 청소년

을 일대일 멘토멘티로 지정하는 등 참석자들간 소통의 시간과 다양한 게임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수련대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은 "모처럼 일상에 벗어나 자연에서 많은 체험을 할 수 있어 즐거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청소년지도위원들도 "아이들이 학업이나 교우 관계로 스트레스도 많고 바쁜데 우리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라며,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 미래가 밝아지지 않겠느냐? 오늘 같은 시간들이 우리 지역 청소년들이 더욱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작은 밑거름들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이번 수련대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잠시나마 일상에 벗어나 즐거운 시간이 되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우리 청소년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그들이 미래의 리더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동구보건소, '육아 및 출산교실' 큰 호응

동구보건소가 운영하는 육아 및 출산교실이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신 육아트렌드, 조부모 육아교실'은 전문 강사가 나서 시대변화에 맞는 육아정보와 기술을 제공한다.

교육은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육아법 △집에서 손쉽게 할 수 있는 놀이법 △승급상황 대처법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세대간 육아방법의 차이로 발생하는 갈등 해소방법 제공으로 조부모의 육아에 대한 자신감 향상 등 조부모들의 만족도가 높다.



지난 4일 첫 교육에는 조부모 50명이 참여했으며, 11일에 두 번째 교육을 진행한다. 또 오는 7월에는 '은가죽 출산준비교실'도

마련됐다. 7월 3일부터 24일까지 매주 수요일 동구보건소에서 진행되며, △야기용품 만들기 △스트레스 관리 및 원예치료 등을 교육한다. 교육 신청은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동구청 홈페이지 내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동구는 앞으로 임신부뿐만 아니라 출산 가정, 조부모 등을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조부모의 육아 스트레스 감소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동구를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경북교육청이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배움터지킴이가 동참하는 청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활동 중인 배움터지킴이는 학

생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 학교생활 안전망을 구축하여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2024년 현재 배움터지킴이는 경북 도내

827개 학교에서 학교 안전 지킴이로 활약하고 있다.

배움터지킴이와 함께하는 청렴이란 학교가 청렴 구역임을 알리기 위해 배움터지킴이실 입구에 '여기서부터 청렴 구역입니다'라는 청렴 표지판을 부착하는 청렴 홍보 활동을 말한다.



180억 투입 (가칭)경북교육박물관 건립 힘찬 시동...

창의·상상력 발휘 미래세대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장소

경북교육청은 (가칭)경북교육박물관 건립 사업이 힘찬 시동을 걸었다.

경북교육청이 우수한 교육 사료와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경북교육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칭)경북교육박물관은 누적 방문객 67만 명에 달한다.

'경북교육사이버박물관'의 온라인 관람 한계를 극복, 경북교육의 역사와 발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 지역 교육 문화 발전에 한 몫 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물관의 위치는 경북교육청연구원 내 터로 현재 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1만3000여 점의 교육 사료와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 관람객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선정됐다.

총사업비 180억 원, 지상 4층(터 3만3794㎡, 총면적 2950㎡) 규모로 202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현재 건축 설계 공모 당선작이 선정, 2024년 하반기 중 기본 및 실시설계가 마무리된다.

(가칭)경북교육박물관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인터랙티브 전시 관람객의 동작에 전시체험물이 반응하거나 관람객이 전시체험물의 일부가 돼 다양한 내용을 보여준다.

전시 유형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박물관 내 공간별 전시와 체험 콘텐츠에 관한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

경북교육의 발자취와 성과를 살펴볼 수 있는 경북교육홍보관을 비롯, 테마(주기)별 교육 관련 이슈를 다룬다.

이곳에 기획전시관과 신라시대부터 현재까지 경북교육을 조망할 수 있는 상설전시관, AI(인공지능),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등의 최신 기술을 활용한 미래 교실 체험관 등으로 구성, 관람객에게 쉽고 재미있게 경북교육의 역사를 전달한다.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가칭)경북교육박물관 건립 사업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넘어, 우리 학생들이 교육 역사를 체험하며 역사 인식을 키우고, 창의·상상력을 발휘, 미래세대의 주인공으로 성장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농번기 일손 부족 걱정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경북농업기술원 봉사단 출동 현장으로 컨설팅 농기계 수리

경북농업기술원 '다-Dream 봉사단'은 지난 7일 농번기를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의성군 춘산면과 다인면에서 봉사단 50명이 참석해 봉사활동을 했다.

농업기술원 '다-Dream 봉사단'은 농업분야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는 농업기술원 직원

으로 구성된 영농봉사단으로 지난해부터 농촌지역의 일손 부족과 병해충 진단 등 현장으로 컨설팅, 농업기계 점검 및 수리 등 추진하고 있다.

봉사활동은 병원 임원으로 농작업 시기를 놓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춘산면 옥정3리 자두 농가 6612㎡의 자두 적과와 다인면 도암리 고령농가 양과·마늘 2660㎡의 마늘 수확 작업을 도왔다.

영농철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

기계 30대에 대한 안전 점검과 고장점검 후 간단한 부품에 대해 무상 수리를 했으며, 자두와 마늘·양과 재배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컨설팅도 했다.

조영숙 경북농업기술원장은 "농촌지역의 고령화와 인력감소로 영농철 일손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다-Dream 봉사단이 농촌의 일손 부족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하고, 앞으로도 농촌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성 기자

경북도, 석유사업자 불법행위 뿌리뽑는다

경북도 민생사법경찰 합동단속 5건 적발... 운전자 3명 검찰송치



경북도는 환경오염과 차 고장을 유발하는 불법 연료 유통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대구경북본부)과 5월 한달간 합동단속에서 석유사업자의 위반행위 5건을 적발했다.

기획단속은 석유 에너지의 건전한 유통과 시장 질서 확립으로 민생경제 피해를 최소화한다.

불법 연료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해 생활권 안전을 확보, 도내 석유 사업자와 불법행위 상습 발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주요 단속 내용은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

달 판매 △등유를 자동차 또는 덤프트럭의 연료로 판매 △석유 불법 이동판매 △무자격 석유 유통 행위 등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서 규정하는 석유사업자의 금지행위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 업체는 2024년 2월부터 경우 36만ℓ를 석유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아 무등록 유통했다.

B 업체는 경우보다 짜지만, 건설기계 연료로 쓸 수 없는 등유를 불법 개조한 차량을 이용해 덤프트럭 연료로 판매했다.

도는 단속기간 내 확인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형사처벌은 도 민생 사법 경찰팀이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

협약이 입증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올해 처음으로 경북도와 한국석유관리원이 합동으로 실시한 단속은 석유 불법유통 행위자에게 강한 경각심과 함께 적극적인 처벌로 재범 의지 감소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는 앞으로도 석유 유통 부정행위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과 협력해 나간다.

경북도특별사법경찰은 도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생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연중 감시 활동을 추진 중이다. 김성용 기자

대구교육청, 안전 쾌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개선

관내 142교 대상 노후 급식기구 교체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16억 원 지원

대구교육청은 관내 142교(유치원 4, 초 74, 중 31, 고 30, 특수 3개교)에 16억 원을 지원, 학교 급식기구 교체(확충) 및 소규모 급식시설을 개선한다.

노후 학교급식 기구 및 시설의 적기 교체로 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학교급식을 운영하기 위해 한다.

대구교육청은 지난 두 달 동안 노후 급식기구 및 소규모 급식시설 교체가 필요한 학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대

상학교와 학교별 지원 내역을 결정했다.

지원되는 예산은 △국술, 취반기, 냉장냉동고 등 학교별 필요한 급식기구를 교체(확충) △비가림막 설치, 조리실 바닥 및 벽면 보수 등 소규모 급식시설 개선에 사용된다.

급식실 냉난방시설 개선, 애벌세척기 확충 등 쾌적한 급식환경을 구축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 만족도를 제고한다.

각급 학교는 학교별 급식 여건을 고려, 자동화 기구 확충, 냉방시설 개선 등 급식기구 구매 및 시설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조리장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다가오는 여름철에 발생할 수 있는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에도 힘쓴다.

대구교육청은 관련 예산 집행이 집중되는 6-8 월까지 3개월간 학교 급식기구 교체 불법 사례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급식기구나 소규모 시설 집행과 관련한 부패 행위로 △급식기구 관련 청탁으로 금품을 주거나 받는 행위 △직위를 이용한 특정 업체 밀어 주기 △납품 전 과정을 통해 뇌물공여, 청탁, 편의 제공 등으로 불법사례를 인지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 가능하다.

시교육청 누리집(www.dge.go.kr)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www.clean.go.kr)에 신고하면 된다. 황태용 기자

정안건설

정안건설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합니다
창의적인 생각과 열정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건설하고,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예천군, 달디달고 달디단 꿀수박 첫 출하

예천군 용궁면에서 아삭하고 달콤한 '꿀수박'이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출하된다. 수박 첫 출하 지역인 예천 용궁면은 44ha 이상의 대규모 수박 재배단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오

랜재배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한 200여 농가가 수박을 재배하고 있다. 맛과 당도가 탁월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예천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수박 과정을 개설해 농

업인에게 전문기술을 교육했으며, 작기 현장 기술 지원과 수경별 공급 시범사업을 통해 고품질 수박 생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아끼고 있다. 정정호 예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지방소멸 극복 국민 전체 해결해야 할 과제...

경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위 활동결과보고서 채택 대안제시

경북도의회 지역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10일 제347회 정례회 기간 위원회의를 열어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도는 노인인구 비율이 23.4%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10월 5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는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지방소멸 대응 관련 토론회와 인터뷰, '경북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은 관련 조례 발의 등으로 활발하게 활동. 집행

부의 노력과 그 결과물을 점검하는 등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고 체감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위해 노력했다.

주요 정책제언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조속한 추진 △지방의료 지원 등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김창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매년 역대 최저치를 갱신하는 출생률로 국가의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단계까지 왔다. 이제 지방소멸 극복은 국민 전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 지역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덧붙였다. 김성용 기자



구미시, 금프라우 조성... 매운맛 포토존 생겨

컵라면 모양의 테이블 캐릭터, 포토존 갖춰... 시, SNS 이벤트 운영

구미시는 금오산케이블카 승강장(해운사 방면) 매점 내 구미라면축제 포토존(일명 금프라우)을 조성했다.

오는 11월 1~3일까지 열리는 '2024 구미라면축제' 홍보와 함께 금오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한다.

포토존은 팝업스토어 등에서 볼 수 있는 인기 컵라면 모양의 테이블과 구미라면축제 캐릭터(부기&누디), 엠블럼 포토존으로 구성돼 있다.

자연에서 만나는 이색 포토존이라는 입소문

을 타고 금오산에 한층 더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많은 방문객이 찾을 수 있도록 6월 한달간 금프라우를 방문해 본인 SNS에 업로드를 인증하는 행사를 열어 100명에게 커피 기프트콘과 라면 굿즈 등의 경품을 지급한다.

'2024 구미라면축제'에 대한 관심이 축제 기간까지 지속되도록 다양한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구미라면축제는 '2024~2025 경북도 우수 지정 축제'로 선정돼 독창적이고 유일한 라면 테마가 도시 브랜드로 새롭게 인정받았다.

시는 축제 기간 큰 인기를 얻은 오지 구미에서 만맛볼 수 있는 '갯 튀김 라면'을 매주 금요일 구미역 인근 분식점(떡촌김밥, 윤스김밥)에서도 제공할 수 있도록 로컬과 연계하는 등 새롭게 도시를 브랜드화하고 있다. 이은진 기자

예천·칠곡군의의회 전반기 마지막 의정활동 돌입...

예천군의의회, 군정업무 전반 추진사항 꼼꼼히 칠곡군의의회, 안전심사 초강수 행정 사무감사

경북내 기초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사실상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다.

예천군의의회

예천군의의회 제272회 제1차 정례회가 10~20일 까지 열렸다.

제1차 본회의에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제안 설명을 듣는다.

이들 심사하기 위해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택, 감사장삼규를 운영한다.

11~17일까지 실과-소를 대상으로 2024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받는다.

주민들과 밀접한 관련 있는 군정 업무 전반 추진 사항을 면밀히 점검. 향후 운영 방안 대안을 제시한다.

최병욱 예천군의의회 의장은 개회사에서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최근 다시 우리지역의 화두가 되고 있다. 행정통합은 경북도민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문제로서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때



예천군의의회 제2차 정례회



칠곡군의의회

까지 충분한 논의와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천군이 시대의 변화에 발 맞추어 흔들리지 않고 지속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의 끊임없는 관심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이날 강경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과 예천군수가 발의한 △예천군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칠곡군의의회

칠곡군의의회도 지난 7~27일까지 21일간의 일정으로 제301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에서 칠곡군에서 제출한 안건 4건(조례안 3, 동의안 1)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처리하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한다.

세부일정으로는 △7일 제1차 본회의의 △20일

제2차 본회의의 △27일 제3차 본회의가 열린다. 각 본회의의 일정에 맞춰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안전심사가 진행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는 배성도·오종열·이상승·권선호·박남희 군의원 등 5명이 선임됐다.

위원장은 권선호, 부위원장은 배성도 군의원 각각 선임됐다.

심청보 칠곡군의의회 의장은 "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안전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강도 높게 주문했다. 앞으로 칠곡군의의회는 군민과 함께 새로운 칠곡군을 만드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한다"고 밝혔다.

제301회 제1차 정례회 세부일정은 칠곡군의의회 누리집의 "의정소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칠곡군의의회는 이번 정례회를 마치고 전반기 의정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게 된다. 조미경 기자 송명주 기자

귀농 최적지 바로 삼백의 고장 상주 뿐



상주시,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 참가 주요 정책 소개

상주시는 7~9일 까지 3일간 서울시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성공귀농 행복귀촌 박람회'에 참가, 상주시의 다양한 귀농귀촌 정책을 소개했다.

시는 지자체 홍보관에서 귀농귀촌 홍보·상담 부스를 운영, 도시민 및 예비 귀농귀촌인들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 주거임대료 지원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 △귀농인 농지임차

료 지원 등 상주시의 귀농귀촌 지원정책 소개와 함께 △농촌에서 살아보기 △상주시농장 운영 사업 △이안면 두 지역 살기 운영 사업 등 지역 체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상주 쌀, 오이, 꽃감 등 지역의 우수 농산품과 가공품들을 전시하고 상주시가 가진 지리적 강점과 잘 갖춰진 농업인프라를 적극 홍보, 귀농의 최적지로 상주를 알리는 데 역점을 두었다.

상주시 관계자는 "상주시의 전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지원 정책들이 귀농귀촌으로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는 도시민들에게 도움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상주화폐 착한가격업소 사용 시 캐시백 지급

상주시는 10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상주화폐 카드를 사용 시 결제 금액의 5%를 캐시백하는 행사를 한다.

캐시백 행사는 가파른 물가 상승세에도 저렴한 가격으로 품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 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추진했다. 이로써 착한가격업소에서 상주화폐 카드를

사용하면 기존 상품권 할인율 10%에 행사 5%를 더해 총 1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착한가격업소 23개소 중 상주화폐 가맹점 21개소가 운영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 누리집과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이 사업으로 소비자들은 경제적 혜택을 받고 착한가격업소는 매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으며 길게는 착한가격업소 등록이 늘어나 지역의 물가안정이 이바지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호 기자

경산자인단오제, 내년에 또 만나요~

드론쇼로 화려한 볼-즐거이 제공 비와 무더위 속 관람객 인산인해

국가무형유산 경산자인단오제보존회주관으로 지난 8~10일까지 경산시 자인면 계정숲에서 개최된 '2024 경산자인단오제'가 3일간의 일정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올해 단오제는 마술쇼, 경산청소년합창단 랜덤플레이댄스, 대학생 댄스공연, 대학장사씨름대회와 전통 무형유산 공연, 현대무용, 지역 예술단체 동아리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어린이부터 청소년, 대학생, 어르신들이 이르기까지 세대를 아우르고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며 지역민들이 함께하는 단오제를 즐길 수 있었다. 개막식 후에 펼쳐진 드론 라이트쇼는 단연 큰 호응을 얻었다.

드론이 펼치는 불빛의 향연은 경산자인단오제와 상상 그 이상으로 피어나는 경산을 형상화

해 계정숲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으며 관람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여러 나라의 복식을 한 다문화가족이 참여해 진행된 장포머리감기 시연 또한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다.

단오날인 10일에는 자인면 시내를 한 바퀴 돌아 한장군 사당인 진종묘까지 가는 호장행렬과 한장군대제, 여원무와 팔광대 공연, 단오굿을 하루에 모두 돌아볼 수 있어 축제의 마지막까지 경산의 독특한 단오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2024 경산자인단오제'의 재미를 더했다.

축제 기간 계정숲을 찾는 관람객들은 팔씨름 대회에 참가하고 장포머리감기 부채만들기, 그네뛰기-캐릭터 소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며暑씨를 뽐냈다.

캐릭터 앞에서 인생 두 컷 사진을 남기고 수목이 우거진 계정숲 산책로를 걸으며 휴식을 취하며 무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명절 단오음력 5월 5일)를 마음껏 즐겼다. 조미경 기자

문경 버드힐 컨트리 클럽 개발 돛 올렸다

문경시는 마성면 외어리 버드힐 문경 컨트리클럽 개발을 본격화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완료했다.

2022년 문경시와 시행사(주)비에이치엠(대표이사 정경환)이 MOU 체결 후 추진하는 버드힐 문경 컨트리클럽은 문경시 마성면 외어리 일대에 위치한다.

총면적 91만334㎡ 규모로 골프장 18홀과 골프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7년 준공을 목표로 한다.

허가된 골프장 터는 과거 2010년 봉룡 산업단지로 착공됐다.

하지만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공사가 중단, 산림 및 자연경관이 훼손돼 지역의 걱정거리였는데 이번 골프장 개발로 친환경 체육공간으로 탈바꿈할 뿐만 아니라 지역내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수 기자



동천동, 저소득 가구 LED 전등 교체

경주시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5일 지역 내 저소득 한부모 가정

5세대를 방문해 노후화된 전등을 LED 전등으로 교체했다. 전등 교체는 동천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인 권순홍, 김원주 위원의 재능기부로

이뤄졌다. 재료비 또한 위원 개인이 전적으로 부담해 청소년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밝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조성했다. LED 전등으로 교체 받은 가구는 공적 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도 포함돼 있어 더욱 의미가 컸다.

얼마 전 자유총연맹 동천지회에서 후원한 백미(10kg)도 함께 전달해 나눔의 기쁨이 더욱 풍성했다. 강경미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17억7천만원 투입... 안강 '시외버스정류장' 착공

안강시외버스정류장 안강읍 정주여건 개선

앞으로 경주시 안강읍 주민들의 시외버스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시는 '안강시외버

스정류장' 건립 공사가 다음달 착공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완공은 오는 12월이다. 토지보상비를 포함해 사업비 17억 7000만원이 투입되며,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안강시외버스터미널은 2017년까지 민간사업자가 운영해 오다가 면허를 반납하면서 현재는 간이정류장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사정이 이런 탓에 주민들은 물론 옥산서원, 흥덕왕릉 등을 보러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도 시외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경주시는 공영 시외버스정류장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새 정류장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왔다.

지난해 토지보상 절차를 모두 완료하고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다. '안강시외버스정류장'은 안강읍 산대리 1526-12번지 일원에 △대기실 △기차센터 △버스차고지 등이 들어서는 사업으로 건축면적은 14703㎡ 규모다. 현재 안강시외버스정류장은 △포항↔안강↔

영천↔하양↔동대구 노선이 하루 10회 간격으로 △안강↔포항 기계 노선이 하루 19회 간격으로 다니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새롭게 들어설 '안강시외버스정류장' 통해 안강읍 주민들의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 나라사랑 버스킹 공연이 지난 9일 황성공원 충훈탑 앞에서 펼쳐지고 있다.

경주시, 나라사랑 버스킹 공연 성황리 진행

청소년오케스트라 하나 된 울림 위로 감동 전하는 뜻깊은 시간...

경주시가 지난 9일 황성공원 충훈탑 앞에서 청소년오케스트라 '나라사랑 버스킹 공연'을 개최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Remember Yours'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공연은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먼저 묵념곡과 현충일 노래를 시작으로 진행됐다. 개선행진곡, 태극기 휘날리며 OST, 위풍당

당 행진곡, Gabriel's Oboe(영화 미션 OST), 희망의 나라로 등 청소년오케스트라의 연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줬다.

김석구 지휘자는 “이번 버스킹을 준비하면서 단원들에게 나라를 지켜준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연주에 임하자고 의견을 모았다”며 “청소년 단원들이 열정적으로 연주해줘서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공연을 관람한 한 시민은 “청소년들이 음악을 통해 나라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감동적 이었고, 의미 있는 역사의 현장 충훈탑에서 청

소년오케스트라 공연은 호국보훈의 영령들에게 위로와 치유의 선물이 되었을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배경에 아동청소년과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넋을 기리고, 청소년오케스트라의 하나 된 울림으로 위로와 감동을 전하는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는 올 하반기 여름 연주캠프, 독도사랑 버스킹, 제14회 경주시 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를 준비하고 있어 앞으로 활동이 기대된다.

방으로 이뤄져 있다. 1일차 7월 4일은 김병우 대구한의대 교수(독도&안용복 연구소장)가 '역사속의 독도, 오늘의 독도'라는 주제로, 2일차 7월 5일은 이경태 경북대학교 교수의 '독도가 독도인 이유'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3일차 7월 6일은 김병우 교수와 함께 부산 수영사적공원, 안용복 생가지, 안용복 기념 부산포 개항문화관 등을 수강생들과 탐방하면서 독도와 안용복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진다.

토함산 '원격음성경보시스템' 구축

6월까지 4000만 원 들여 하동·상범마을 2곳 설치

경주시가 집중호우 및 태풍 등에 따른 풍수해 빠른 대처를 위해 토함산 자락 주요 마을에 재난예방 원격음성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이달까지 4000만원 사업비를 투입해 불국동 하동마을과 문무대왕면 상범마을 2곳에 우선 설치한다.

성건동,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주민 대피훈련

경주시 성건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5일 화랑마을에서 석장동 인근 산사태 취약지역 주민들과 대피훈련을 했다.

산사태에 대한 주민들의 상황대처 능력을 향상하고 대피체계를 점검하기 위해서다.

올해 기상예보에 따르면 국지성 집중호우와 강력한 태풍의 잦은 발생으로 지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원룸과 전원주택이 밀집된 석장동 큰갯산과

이 시스템은 재난상황 발생이나 우려 상황을 스피커를 통해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는 메신저 장치로 평상시에는 설치된 LED 전광판과 엠프를 통해 녹음된 음성과 문자가 송출된다.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관련 공무원이나 마을 이장이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대피 명령 등을 실시간으로 송출할 수 있다.

태양광을 이용해 배터리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완충 시 10일 이상의 전력을 축적할 수 있어 장마철에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성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주민들과 함께 산사태 주민 대피훈련을 했다.

옥녀봉 하단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경각심이 어느 해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경주시립도서관, 독도 인문학 교실 운영

2회 강연, 1회 현장 탐방 도서관 홈페이지서 신청

경주시립도서관은 대구한의대학교 독도&안용복 연구소와 협력해 새달 4~6일까지

2024 독도 인문학 교실을 운영한다.

인문학 교실은 직장인과 성인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역사를 바로 알리고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좌는 총 3회로 2회의 강연, 1회의 현장 탐



2025년 APEC 정상회의

경주 위치를 희망합니다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경북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영덕군에 선풍기 130대 기탁

(사)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 경북지역본부(이하 농지킴이)는 여름철 취약계층을 위해 560만 원 상당의 선풍기 130대를 영덕군에 기탁했다.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는 매월 NH농협은행 임직원들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사회 공헌단체다.

1996년 12월 농업과 농업인을 대변하는 대외적인 농정활동을 위해 임의단체로 설립돼 사회공헌 활동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필 경북지역본부장은 “농촌의 가치를 지키고 지역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도읍성 음악회 성료

청도군 화양읍이 주최한 청도읍성 음악회가 지난 8일 청도읍성 일원에서 주민, 관광객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음악회는 주민 간 화합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청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청도읍성의 아름다움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야랑고고장구, 지역 음악인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한 노래 공연, 초청가수 축하공연 등으로 행사를 가득 채웠다.

이동명 화양읍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주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화양의 아름다움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청송소방, 안전사고 예방교육

청송소방서는 최근 청송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6월 정례회 및 직장훈련을 했다. 주요 내용은 △경북도 기술경연대회 구조전술 분야 3위 도지사상 전수 △소속 직원 비번 화재진압 미담사례 서장 포상 △안전사고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 개선교육 등이다.

교육은 석정아 경주 꿈바라기 장애인통합교육센터 대표를 전문강사로 초빙하여 직장·사회 내 장애인식 개선을 주제로 진행했다.

문정환 서장은 “순직사고는 절대 있어서 안될 가슴 아픈 일이다”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대원들이 재난현장에서 더 안전한 활동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독도 지키기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 성황

제19회 독도 지키기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했다. 대회는 지난 9일 580여명의 선수들이 참가했다. 독도 지키기 울릉도 전국 마라톤 대회는 우리 민족의 섬 독도를 지켜낸 독도의용수비대의 숭고한 애국심을 되새기고,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시작됐다.

대회코스는 모두 울릉문화예술체험장(구 장흥초등학교)에서 출발, 울릉순환도로를 반시계방향으로 달려 섬을 일주하는 풀코스(42.195Km)와 시계방향으로 달려 각 반환점으로부터 되돌아오는 하프코스(21.0975Km)를 비롯한 10Km, 5Km의 단축코스로 운영됐다. 주민 및 전국마라톤동호회 뿐만 아니라 현장을 방문한 관광객들도 참여했다. 대회에서 남자부 풀코스 이경섭, 여자부 권효정, 하프코스 남자부 강기필, 여자부 강은영, 10Km 남자부 신성일, 여자부 추은하 씨가 각각 1위를 차지했다. 울릉경찰서 및 울릉도 모범운전자회에서 행사 당일 교통통제를 지원했다. 앞서 5일 교통 요원 자원봉사 사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대회진행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남한권 울릉군은 “울릉도를 찾는 선수들과 관광객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에메랄드 빛 해안을 끼고 달리는 해안도로 코스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마음껏 즐기며 울릉군의 홍보대사가 되고 행사진행을 위해 힘쓴 기관단체에 감사의 말을 드린다고 전했다.

정윤환 기자

영덕을 사로잡은 미술쇼 페인터즈 성료

문화 취약지역 문화향유 기회 확대 진행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의 선적작인 ‘페인터즈’ 공연이 막내렸다.

영덕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팀에서 최종 파낸 공모사업은 ‘2024년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9800만 원)과 ‘공연예술 유통 사업’(2억 1400만 원)이다.

문화예술포럼·공연단체·예술인 등의 협력으로 공연 시장의 활성화를 이끌고 문화 취약지역에 문화 향

유의 기회를 확대 진행하는 사업이다.

“2024 지역맞춤형 중소규모 콘텐츠 유통 사업”으로 선정한 년퍼블 퍼포먼스 ‘페인터즈’는 2010년 첫 공연을 시작해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15개국 67개 도시의 월드투어를 마쳤고 누적 관객 수 710만명을 기록한 검증된 년퍼블 퍼포먼스 공연이다.

“미술같은 미술쇼라 불리는 공연은 실시간으로 미술 작품이 완성돼 가는 과정을 3D 비디오 프로젝션 맵 등 첨단 장비를 통해 입체적으로 구현해서 관객의 탄성을 자아냈다.

일반 관객이 무대의 퍼포머와 함께 미술작품을

드라마틱하게 완성해가는 조력자로서 참가해 흥미로움을 더했다. 페인터즈의 출연진 또한 ‘아시아 갓 탤런트’에 참여했던 팀으로 다채롭고 수준 높은 퍼포먼스를 펼쳐 보였다.

춤 추듯 그림을 그려나가는 ‘액션 드로잉’, 빛을 조각하는 ‘라이트 카빙’, 물 위로 번지는 아름다운 색채의 향연 ‘마블링 아트’ 등 다양한 미술기법에 음악과 영상, 액션까지 더해져서 눈을 뗄 수 없는 현란한 미술쇼가 펼쳐졌다.

무대가 변신하는 매 순간마다 경이로운 감탄사와 뜨거워진 박수도 아낌없이 터져 나왔다.

페인터즈 공연을 관람한 영덕의 한 청소년은 “미술과 관련된 공연을 처음 봐서 정말 신기했다. 특

히 빠른 손놀림으로 그림이 순식간에 완성되고 변신하는 것이 놀라웠다.

그림이 이렇게 재미있는 것인지 알게 됐고 앞으로 미술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될 것 같다”는 소감을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공연은 ‘페인터즈’ 포함 총 3편이다.

페인터즈 이후 △휴먼드라마 이기동체육관 △가족마당극 쪽빛황혼이 무대에 오른다.

자세한 내용과 예매 정보는 영덕문화관광재단 누리집(<https://ydc.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사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했다. 조여은 기자

바르게살기운동 영양·봉화협의회의 맞손

문화 인적교류 화합도모 봉사활동 서로 상생협력

바르게살기운동 영양·봉화협의회 회원들의 친선교류행사가 성황리에 마쳤다.

행사는 지난 7일 수비면 청소년수련원 및 자작나무숲 일대에서 열렸다.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와 문화교류, 인적교류 및 화합도모를 위해 마련됐다.

교류행사에는 70여 명의 영양군과 봉화군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의식행사, 자작나무숲 방문, 선물교환, 양협의회의 화합의 시간 등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회원들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취지인 진실, 질서, 화합의 3대 이념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는 국민정신운동을 전개해 영양군과 봉화군이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앞장서 일할 것을 다짐했다.

안형욱 바르게살기운동 영양군협의회장은 “교류와 협력이 강조되는 시대에 화합의 자리를 통해 서로의 이해의 폭을 넓히겠다. 보다 많은 소통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단체가 되도록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양 협의회가 친선교류행사와 각종 봉사활동을 통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는 단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앞으로도 바르게살기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6·8 독도美 공군 폭격 사건 어민 위령제 거행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위령제가 지난 8일 독도 현지에서 열렸다.

1948년 6월 8일 독도에서 조업 중 미(美) 공군 폭격으로 억울하게 숨진 어부들과 독도를 지키다 순직한 경찰관, 독도의용수비대원들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위령제다.

행사는 희생자 유족, 경북도, 울릉군, 독도재단, 대구지방방위사회, 독도학회, 대구비룡라이온스, 대구동구회 등이 참가·후원으로 고인의 넋을 기렸다. 너울무용단(허영아, 김은아, 정소연)의 넋을 기리는 살풀이를 시작으로 지역 종교지도자(불교 등)가 참여한 영혼을 달래는 불교 예불과 (사)푸른울릉독도가구회 회장 정석두, 김상복 유족대표 등의 제의 및 축문 낭독 등을 거행했다.

위령제 전날 독도 6·8사건과 시민사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울릉군청 회의실에서 유족 및 전문가 20여명이 참가한 토론회를 열었다.

남한권 군수는 “독도 6·8사건은 독도가 우리 국민들의 삶의 터전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고 말했다.

남군수는 “전문가 토론회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되돌아 보고, 앞으로 우리는 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전개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는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미군 독도 폭격 사건은 해방 후 울릉도 및 강원도 어민들은 삶의 터전인 독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아로활동을 했다.

그런데 미국은 대일 강화조약 이후 독도를 미국의 폭격 연습장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미군정은 이 사실을 주민들에게 전혀 알리지 않아, 결국 작업 중이던 한국 어민들은 미 공군의 독도 폭격 연습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정윤환 기자

제38회 평해단오제 성황리 막 내려

제38회 평해단오제가 막내렸다.

행사는 지난 8·9일 이틀간 울진군 평해읍 시가지에서 열렸다. 올해는 울진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서 발돋움하기 위해 개최 장소를 평해읍 시가지 일대로 옮겼다.

“뉴트로 in 평해”라는 컨셉으로 전통성과 관광화를 모두 잡기 위해 평해읍을 문화마당, 놀이마당, 평해마당으로 꾸며 평해읍 시가지 전체를 문화거리로 조성했다.

전국의 13개 대표 스포츠 줄다리기팀 18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스포츠 줄다리기대회와 남창동이 펼치는 화려한 곡예 기술의 줄타기 공연은 곳은 날씨에도 많은 관람객들의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뉴트로 대표가수인 도시의 아이들, 판따라 패밀리, 트롯가수 이효진, 송가인의 축하무대를 비롯해, 평해의 밤하늘을 수놓은 드론쇼와 불꽃쇼로 첫째날 행사를 화려하게 마무리했다. 이정수 기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 민생 투어 빛났다

지역의 다양한 특성 맞는 치안활동 펼쳐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의 마라톤 현장 감탄회가 청도경찰서를 끝으로 대미를 장식했다.

김 청장은 지난 7일 청도경찰서를 방문, 유공직원을 표창하고 직원들과 소통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에서는 청도군 조형물 탐방 사기사건을 수사, 피의자를 구속한 지능팀 정다운 경장과, 새벽시간대 특수절도범을 끈질긴 수색으로 검거한 금천파출소 송구일 경사를 표창하고 격려했다.

청도경찰서 방문을 마지막으로 경북경찰청 소속 23개 경찰서에 대한 현장방문을 마무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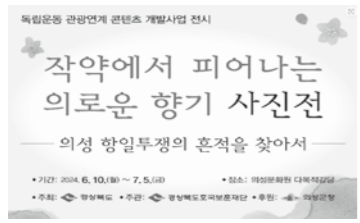
김 청장은 그간 고향경찰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현장 점검, 포항남부경찰서 교통안전시설 개선 현장 점검, 성주경찰서 농번기 농산물 절도 예방



활동 점검, 봉화경찰서 실종자 수색 FTX 현장 점검, 영양경찰서 지역축제 인파관리 현장 점검, 경산경찰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현장 점검 등 시가지소별 맞춤형 현장방문을 했다.

김 청장은 “경북은 관광구역을 전국에서 가장 넓어 지역별 특성이 다양한 만큼, 각 경찰서에서 특성과 시기에 맞는 경찰활동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맞춤형 현장방문과 점검을 했다”라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의성군, 독립운동
에세이 사진전 개최

의성군은 10일부터 오는 7월 5일까지 의성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의성군 독립운동 에세이 사진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북도에서 주최하고, 경북도호국보훈재단에서 주관하며, 의성군에서 후원하는 이번 사진전은 2023년 발간한 '작약에서 피어나는 의로운 향기' 에세이에서 소개된 의성군 독립운동 사적지 및 자료 등 약 50점을 사진을 전시한다.

전시는 작가 및 의성 독립운동 소개를 시작으로 1부 '의성의 뿌리와 정체성', 2부 '의(義)를 기치로 들고 일어난 의성의진(義眞)과 의병들', '의성 곳곳을 휘날린 태극기의 물결', 3부 '한 발짝 더 의성으로 들어간다'의 순으로 진행된다. 박재성 기자



성주군 체납세 분야 토론회
"최우수상" 수상

성주군 이재호 주무관이 지난 3일 제주시 더원호텔에서 열린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세 분야 토론회인 『2024 자유로운 생각 나눔의 장』에서 지방세 체납세 부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군 체납세 징수 담당 공무원들이 서로 체납세 징수업무의 선진 기법을 공유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장으로써,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 주관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발표회 방식을 벗어나 먼저 연구과제 발표자가 사·군별 우수사례를 발표하면 다른 토론참가자도 누구나 자유롭게 토론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성주군은 '작은 관심으로부터 큰 조세채권 조기확보'라는 과제명으로 공매처분을 통한 체납징수의 주제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도재훈 기자

봉화군보건의소, 담배 없는
봉화만들기 앞장

봉화군보건의소는 지난 7일 봉화상설시장에서 제37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지역주민 및 방문객 대상으로 금연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창립 40주년을 맞이해 담배 연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정된 날이다.

이번 캠페인은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약 10억 명이 흡연을 하고 있는 가운데 흡연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알리고 담배 없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전상기 기자

영천시민 행복과 안전은 다목적용 CCTV로

CCTV 72개소 164대 신규
23개소 39대 노후 교체

영천시는 다목적용 CCTV로 각종 범죄 예방 및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보다 나은 행복 영천을 만들기로 했다.

우범지역 22개소 및 농촌마을 50개소에 신규 다목적용 CCTV 164대를 설치하고, 노후화된 CCTV 39대도 교체할 예정이다.

특히 농촌마을 CCTV 설치사업은 2023년에 이어 확대 추진 중에 있으며, 갈수록 고령화 되어가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영천경찰서 및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지역에 설치함으로써 치매노인 실종사고 대처, 농작물 절도 및 빈집털이범 등 농촌마을의 범죄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완료 후 스마트도시통합센터와 연계한 통합 관리로 범죄예방효과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재난재해 감시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여 안전한 영천시 만들기 위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천시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다목적용 CCTV 설치를 요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라며, "CCTV를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해 각종 사건사고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행복한 영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향후 지능형 CCTV 및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을 도입해 범죄 예방을 비롯해 각종 사고에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최은하 기자



영주시, 금계마을 '행복 명당 문화센터' 건립

경북도, '문화특화마을육성사업'
선정, 지난해 9월 착공

정감록 심층지 중에서도 제1층지로 꼽히는 영주시 풍기읍 금계리에 주민 문화 활동 거점 역할을 할 '행복 명당 문화센터'가 탄생했다.

영주시는 10일, 마을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 명당 문화센터(금계리 537-2번지 일원) 준공식을 개최했다.

행복 명당 문화센터는 지난 2022년 경북도 '문

화특화마을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공사비 6억1200만 원(도비 1억 8400만 원)으로 지난해 9월 착공, 지난 5월 1층 64.29㎡, 2층 50㎡ 규모로 건립됐다.

금계리에는 문화센터를 연극 동아리 등의 연습 공간을 비롯해 다양한 문화 활동의 거점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향후 주세봉 선생과 성리학 등 지역과 관련된 역사 홍보콘텐츠는 물론, 풍년을 기약하는 음악회 등 행사도 마련해 주민뿐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적 불거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장길 금계리 이장은 "주민이 윤택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이번 문화센터 준공을 계기로 경북을 대표하는 문화마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행복 명당 문화센터가 지역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의 거점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고령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

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캠페인 홍보활동

고령군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은 지난 9일 대가야사공원에서 '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캠페인' 홍보활동을 펼쳤다.

대가야시장 장날을 맞아 시장을 찾은 많은 분들에게 나눔캠페인 홍보물품과 음료를 전달하며 캠페인을 널리 홍보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캠페인은 폭염 등 하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모금 캠페인으로 6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진행된다.

성금모금에 참여하고자 하는 분은 ARS 기부 060-702-1004, 문자기부 #9004, 주민복지과 희망복지팀 ☎054-950-6231-6233 및 읍면 복지담당 부서에 문의해 참여하실 수 있다.

정수환 단장은 "하절기 폭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캠페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사랑의 열매 나눔봉사단의 홍보 활동으로 '희망여름 착! 착! 착! 나눔캠페인'이 널리 전파가 되어 폭염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배영백 기자

봉화군 핵심사업 2025년
국비 예산 확보에 총력

봉화군은 지난 7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국가투자예산 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고, 임종득 국회의원을 방문해 역점 사업에 대한 지원을 부탁하는 등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중앙부처 예산편성 순기에 맞춘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으며, 총

영천시립박물관
동국팔도대총도 기증받아

지난 4일 유물기증운동 붐이 일어난 영천시에도 한 번 소중한 문화유산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천시는 10일 채신공단에 소재하는 ㈜한중엔시스 김환식 대표이사과 함께 유물 기증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기증받은 유물은 '동국팔도대총도' 총 13장 판본을 배정한 여지도(輿地圖)이다. 여지도는 구한

47건의 사업(총사업비 7,073억 원)에 대해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국회 임종득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군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K-베트남 벨리 조성 사업 △국립삼립민안전원 유치 △국지도 88호선 개량공사 △남북9축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대해 국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또한 군 현안 사업인 △봉화노인복지센터 증축 사업 △감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국비 확보 지원을 요청했다. 전상기 기자

말 이후 제작된 석판본 지도이며, 조선시대 각 군현별 지도 및 조선 전도, 중국, 일본 지도를 망라한 판본이다. 세부 구성으로는 천하도, 중국도, 동국팔도대총(함경도·강원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황해도·평안도)와 일본국도·유구국(현재의 오키나와)이 확인된다.

유물 기증자는 평소 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지난 35년간 고문서 등 다방면의 자료를 수집해 왔고, 그러던 중 내년 하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영천시립박물관에 『동국팔도대총도』의 무상 기증의사를 밝혔다. 최은하 기자

영주시,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 시범운영

22일부터 시범운영
7월 20일 정식 개장

영주시는 무더위를 날려버릴 도심 속 피서 공간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을 오는 22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가흥안뜰공원 물놀이장은 총 8회의 시범운영(△6월 22일, 23일, 29일, 30일 △7월 6일, 7일, 13일, 14일)을 거쳐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정식 개장한다.

시는 12일부터 7월 19일까지(기간 중 수·목·금요일) 어린이집 대상 사전예약제(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서비스 선택순 예약)를 운영해 영유아들에게 도심공원 내 물놀이 체험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물놀이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운영하고 1시간 휴게시간을 가진 뒤 오후 2~4시까지 2시간을 운영한다.

이용 대상은 12세 이하 어린이로 보호자가 필요한 영유아는 보호자 동반 입장이 허용된다.

물놀이장은 운영시간 30분 전부터 현장 접수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620㎡ 규모의 물놀이장에는 해적선 모양의 물놀이조형대가 설치돼 있으며 대형 버킷과 우산 분수, 워터 터널 등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세족장과 간의 탈의실을 설치하고 일부 시설물을 재정비해 이용객들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시는 안전요원 배치,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상철 공원관리과장은 "철저한 사전 준비와 운영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상기 기자



6월은 2025 APEC 경주 유치 승리의 날 신라천년제국 위상 세계 만방에 떨치자

경주 넘어 경북 백년대계
밀그림 그리는 대의 위해
모든 역량 총동원 해야...
2APEC정상회의 유치실패
그 책임은 결국 정치권 몫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 꿈은 반드시 이뤄진다.”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으로 신라천년 제국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려 한다는 절규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오는 20일께 개최도시가 결정되면서 경주는 지금 막판 APEC 정상회의 유치전이 용광로보다 더 뜨겁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위해 550만 대구·경북도민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이 뿔뿔물

쳐 2025 APEC 정상회의=경주 뿐이라는 당위성 공식을 피력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유치가 사활을 건 경주가 경쟁상대인 인천·제주가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결국 APEC 정상회의 유치전이 경쟁을 넘어 선혈이 낭자한 진검승부를 하고 있는 경주가 전 인천·제주를 상대하기에는 힘이 부친다.
때문에 경주를 넘어 경북도의 백년대계 밀그림을 그리는 대의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2025 APEC 정상회의 경주 유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그 책임은 결국 정치권이 고스란히 져야 할 몫이다.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2025 APEC 정상회의는 마·일·라·중 세계 4강을 비롯, 아태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이 참가하는 국가적인 큰 행사다.

전 세계의 이목이 한국에 쏠리고 있다. 외교·경제·문화적 역량을 심분 발휘하여 국격을 높이고 한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중요한 모멘텀으로 활용돼야 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APEC은 단순한 회의가 아닌 한국의 발전상과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경주에서 꼭 개최돼야 한다”는 결의를 보였다.
경주는 신라 천년고도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도시이자 한반도 문화유산의 보고로 대한민국 5천년 역사를 세계 속에 알릴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게 이유다.
신라는 한반도 전체를 하나로 통일한 최초 국가이다. 그 통일문화가 탄생하고 발전한 곳 즉 한국 문화의 본질이자 정체성이 서려있는 곳이 신라이며, 그 시작점이 경주다.
현재 유치 3파전을 벌이고 있는 경주·인천·제주 중 유일한 지방중소도시는 경주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어떻게 지방에서 국제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는 금물이다.
경주는 APEC 교육장관회의, 세계물포럼, G20 재무장관회의, 세계유산도시기구 세계총회 등 다양한 국제행사의 성공 개최 노하우가 풍부하다. 국제컨벤션협회(ICC) 발표 아·태지역 55위, 전 세계 270위 기록 등 전국 기초단체 중 국제회의를 가장 많이 개최한 도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APEC의 포용적 성장과 지방화 시대 지방균형발전 가치 실현의 최적모델 역시 경주다.
그간 멕시코 로스카보스(2002),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2012), 인도네시아 발리(2013), 베트남 다낭(2017) 등 역사·문화 중소도시 성공 개최 사례를 보면 경주의 당위성은 차고 넘친다.
경주는 정상의 경호와 안전, 보안을 위한 입지적 조건도 최고다.

정상회의가 열릴 보문관광단지에는 회의장과 숙박, 전시장 등이 3분 거리로 이동이 매우 짧으며 사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타 후보도시와 달리 바다와 접해있지 않으며 보문관광단지 전체 1200만㎡를 민간인출입통제구역으로 설정, NGO 등 외부경호에 요새이다. 2005년 APEC이 부산에서 개최될 때 한미정상회담은 보문관광단지에서 열렸다.
보문관광단지 일대 178만㎡가 2022년 비즈니스 국제회의 복합지구로 지정되어 적은 비용으로 도시 마케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경주화백컨벤션센터 주 회의장 주변 3km 이내에 103개소, 4463실의 정부대표단 수요대비 157% 객실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정상용 5성급 호텔 및 스위트룸 등이 10곳, 223실로 숙박도 최우수준이다. 50분대의 김해국제공항 등 4개 공항(군사 3, 민간 1)과 KTX·SRT 등 완벽한 교통망도 빼놓을 수 없다.
경주는 영남권 산업벨트의 중심허브 도시로 대한민국 산업화를 일구어 낸 성장축의 중심에 있어 대한민국 경제발전상을 공유할 수 있는 최적지다.
경주의 한수원, 원전, 소형모듈원자로(SMR)와 포항(포스텍, 이차전지), 울산(완성차, 조선), 구미(반도체), 안동(바이오) 등으로 이어지는 산업대동맥이 형성돼 있기 때문이다.
APEC이 개최될 11월은 행정색채의 단풍 최절정기로 세계 정상과 영부인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에서 찍은 사진이 전 세계에 소개된다면 그야말로 감동 드라마로 세계의 이목이 경주와 한국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9월 ‘APEC 정상회의의 경주유치 10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불과 85일 만에 25만 경주인구 보다 약 6배 많은 146만3874명이라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보여 주었다.
이는 경주가 APEC 정상회의의 최적지로 손색이 없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주시장은 “오는 6월 도시 결정을 앞두고 타 도시와의 차별화된 전략과 준비로 정상회의의 최적 도시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강점과 파급력을 최대한 피력, 반드시 성공유치로 경주는 물론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리고 APEC 역사에 길이 남을 성공 롤모델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유치가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경주는 APEC 유치 도시 선정의 숙명이자 필연이기 때문이다. 김성용 기자
윤용찬 기자

